



## 무서워요

진병수/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저기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맺어왔어요. 평소에도 불규칙한 생리라 하지 않아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특별한 신체적 이상도 느끼지 못했구요. 그러나 점점 체중이 늘어나는 것 같고 예전과 다른 것을 느끼며 임신에 의심해 봤지만 확인한다는 것이 겁이 났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배는 점점 불러와 할 수 없이 병원에 가봤는데... 울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들어오지 않더군요. ‘학생, 현재 임신 7개월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지요?’ 처음엔 어안이 병병해 선생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더군요. 이미 손 쓸 수 있는 시기는 지났고, 혼자 많이 울었어요. 집안에선 이 사실을 몰라요.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정** 말 안타깝기만 한 사연이군요.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늦은 상태라니. 많은 아이들이 — 축복 속에서 세상을 맞이하는데 그 반면에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그들의 현실에 놓여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무섭고 두렵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마’가 되야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혼자 겪어야 하는 일보다는 이런 사실을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서 알면 충격이 크실 것이고, 실망

이 얼마나 클까 말이지요. 배신감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께 실망 드릴 수 없다는 마음에서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런 심정으로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가능하면 숨기고 혼자 해결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군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없다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격이 크실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입장에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려는 노력을 하실 것이라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세요.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혼자 아파하고 혼자 감내한다는 것은 아직 감당하기에 미숙하거든요. 참고로 전국적으로 미혼모를 위해 도움을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용시설을 알고 싶으면 전국 청소년상담실에 문의하면 알려줄 거예요. 수용시설에서 분만할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숙식 제공에 비용은 들지 않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보다 빨리 어머니가 되는 것일 뿐이니까요. 빨리 어머니가 된다 해서 삶이 뒤쳐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남들보다 빨리 아이를 낳아 보는 것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그만큼 알고 이해할 수 있으니 좋은 일 아닐까요. 그만큼 남들보다 빨리 성숙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리고 ‘아기 아버지’에게 꼭 말하세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